



8면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체계 구축
정읍시, 따뜻한 복지 도시 '우뚝'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음 6월 9일) 제258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정수장 수돗물 유충 미검출

도, 긴급점검... 무풍 정수장 여과지서 유충 검출 모래 전면 교체... 노후시설 개량 국비지원 건의

전북도는 최근 수돗물 유충사고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환경청 및 k-water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점검 결과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8만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중인 고산정수장(파용담댐), 석성정수장(삼진댐), 동화정수장(동화댐), 부안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은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 중 17개 정수장은 일부 주변 침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무풍정수장의 경우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28일 오후 7시)돼 즉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채수(28일 오후 11시)하고 분석한 결과 유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중에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여과지 역세척 및 침소 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도는 유충발검 확인 즉시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무주군에 여과지 모래 전면 교체를 요구 28일 오전

10시까지 여과지 준설 및 고압세척과 함께 여과지 모래를 전면 교체 완료했다. 추가로 여과지 상부 덮개 주위에 벌레가 유입하지 못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타 지역 정수장 대

응수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한편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유충 의심 민원은 총 2,047건(인천 1,298건 인천외 749건) 접수돼 인천시만 수돗물 유입 253건 발생, 그 외 지역 271건은 가정 내 배수구 등 외부 유입으로 확인되었고 전북도는 현재까지 유충 의심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금번 점검결과 도내 정수장 17개소에서 확인된 주변 침소상태 및 방충

망 보수 등 단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완료하고 향후에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에도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쏟아진 폭우에 잠긴 차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전주시 백제교 인근에서 운전자들이 쏟아져 내린 폭우로 빗물에 잠긴 차도를 지나고 있다.

군산항 활성화 전방위 대응

도, 화물유치 지원방안 등 연구용역·실행방안구체화

전북도가 군산항의 현재 여건을 면밀히 분석,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물동량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먼저 도와 군산시는 6,100만원을 투입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인센티브 개선방안과 전북도 이월화물 유치에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적 포트세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지구 및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특송업체 통관장 및 냉동냉장창고 등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콜드체인 거점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전기차 생산단지 등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및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센터 유치 등 군산항을 원스톱 자동차 수출입 복합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최신 트렌드에 맞춘 부두기능 재편 및 보강, 부속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사업화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 19 피해 한중 국제여행선 지원 및 추가대책을 마련중이다. 2018년 주 6항 서비스 및 신조선 2척을 건조, 여객 및 화물량 급증세이던 석도국제해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화물만 취급해 감차 운항,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선박금융 원금 납부유예(11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지원(6.5억원) 및 손실보전금(3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받지 못했던 정부 정책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20억원) 대출을 위해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를 찾아가 지원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건의할 계획이다. 도에서도 추가 손실보상금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추가대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해수청과 협력 항만 기반시설 및 배후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서해해상풍력단지 실증단지 가시화 및 도내 기업의 해외 대규모사업 사업 발주 등 중앙화물 부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상풍력 허브구조물 및 블레이드 등 중량 기자재 해상 반출을 위해 6부두 야드 기반보강 및 크레인 시설을 연말 선정하는 노후항만 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보강할 계획이다. 중앙화물 부두를 확보하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도내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해외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에 없는 항만배후단지 확보를 위해 7부두열 해상대 규모 준설토투기장을 건설, 단계별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해발 완공되는 철도 철송장과 신공항 등이 건설되면 복합 물류 체계를 완성해 군산항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신규화물 유치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증축(2020년~2022년/120억원) 및 다목적 관리부두(2018년~2021년/458억원) 건설, 7부두 임항창고(2020년~2021년/195억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운동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해수청,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2년간 간소화

전북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해 홍보 강화와 사전준비 및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관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지역별 대상 부동산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

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

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

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